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 실태 연구

Actual State of Korean 'Geese Mothers' in New Zealand

대진대학교
교수 김 영 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최 명 선
박사 이 지 항

Daejin University
Professor : Young Hee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 : Myung Seon Choi
Doctor : Jee Hang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Korean 'geese mothers' in New Zealand. The analysis was performed for 66 Korean mothers, who had moved temporarily to New Zealand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data have been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iles and content analysis.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mothers were living in New Zealand temporarily for one to three years with one or two children. They hoped that their children will gain better and wide-spread opportunities because of studying abroad. The mothers expected their children to become well prepared as internationalized persons, able to achieve a satisfying occupation with high standard abilities. New Zealand's education system and their migration were highly satisfactory in the mothers' opinions. Most of the them contacted with their husbands who remained in Korea, through e-mails and phone calls, at least once in a week. Most of their friends were

Koreans. They listed differences of language, mental values, and personalities as the reasons for having a larger number of Korean friends. The communication with the friends in New Zealand were being done by phones and e-mails mainly. Although there are difficulties for them to communicate others in English, they preferred to enjoy leisure time outside other rather than stay in house. And they gave themselves positive rates on adapting to the new environment, New Zealand.

주제어(Key Words): 조기유학(overseas study), 기러기 어머니(Geese Mother), 한국 어머니(Korean mother), 뉴질랜드(New Zealand)

1. 서론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부모는 고향에 남아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공부를 하는 분거 가족 현상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자녀를 해외에 조기유학 보냄으로 인하여 가족끼리 서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는 독특한 형태의 분거 가족이 등장하면서 기러기 가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기러기 가족이란 최근의 조기유학 열풍으로 인해 파생된 현상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빠는 한국에 남아 생계를 책임지고, 엄마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동반 유학하는 경우를 말하며(김양희, 장은정, 2004),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를 기러기 아버지, 자녀와 동반 유학을 하는 어머니를 기러기 어머니라고 한다. 이러한 가족 형태는 자녀들만 유학생활을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나타난 대안이다. 즉 부모 없이 혼자 유학하는 아이들 중에는 공부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유흥에 빠져 마약까지 손대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러다보니 엄마가 현지에서 자녀들과 동거하면서 돌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뉴스메이커, 2001).

서울시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01년도에 유학과 이민을 위해 학교를 중도 탈락한 서울 지역 중·고교생은 4,376명, 초등학생은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러기 가족이 그만큼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기유학의 비율이 해마다 점점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음(양정호, 2003)을 고려할 때, 기러기 가족의 발생 역시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기러기 가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에 최양숙(2005)은 몇 가지 요소들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본 연구에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동일체감이다. 부모-자녀 동일체감이란 다소 복잡한 개념

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사랑, 지배욕, 집착, 체면이나 대리만족의 욕구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부모-자녀 동일체감을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경제적 부담과 가족간의 별거 등을 감수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받아들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자녀는 자신들과 같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편안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의지가 작용한다. 특히 대부분의 기러기 아버지 연령대가 한창 주입식 교육과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시달렸던 30, 40대라는 점과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한 측이 부모라는 점(김양희 외 1인, 2004; 최양숙, 2005)을 고려하면 이러한 견해는 매우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

둘째, 한국 교육체계에 대한 불신으로서, 여기에는 공교육 체계는 물론, 사교육에 대한 불만이 포함된다. 즉 현재의 공교육 체계만으로는 자녀를 이른바 명문 4년제 대학교에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엄청난 비용은, 부모들로 하여금 '차라리 해외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편이 낫다.' 라고 판단하게 함(양정호, 2003; 이미나, 2001; 최문영, 2001)으로써, 기러기 가족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학벌과 학력위주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한 몫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다.

셋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자녀를 조기유학 보냄으로써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접한 부모들은 자신들도 자녀를 해외에 내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동시에,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여겨졌던 분리 가족 형태에 대해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면서, 기러기 가족이

하나의 대안 가족으로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단순히 기러기 가족 발생의 원인 중 한가지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함으로써 기러기 가족이 한국 사회 내에서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가 된다. 즉 이제 더 이상 기러기 가족은 조기유학의 열풍이라는 일시적 현상에 뒤따라 등장한 일시적이며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기러기 가족은 자녀 중심적인 가족관계 양식과,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 및 교육 체제에 대한 불신 등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현대 한국 사회의 독특한 가족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러기 가족의 생활 전반에 대해 심도 깊게 탐색하는 것은 단순히 장기 분거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가족들이 가진 어려움과 적응 방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기러기 가족과 같은 분거 가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데, 이는 기러기 가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이 최근의 일이라는 점과 기러기 가족을 비정상적이며 일시적인 가족형태로 간주한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김양희 외 1인, 2004).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기러기 아빠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주로 심리적 외로움, 가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외도나 가족 간 유대감 약화 문제(김양희 외 1인, 2004; 뉴스메이커, 2001; 최양숙, 2005)와 같은 부정적 측면들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만으로는 기러기 가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사점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는 상호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편에 의해 형성·유지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기러기 가족에 뒤따르는 가족 간 유대감 약화라든가, 외도, 심리적 불만, 가족 해체 등의 문제점들은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의 시각만으로는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둘째, 기러기 가족의 구조를 살펴볼 때, 현지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능과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 전체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실태 및 기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중 기러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며 탐색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기러기 어머니 연구에 대한 첫걸음으로서의 기능을 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결과는 기러기 어머니들의 생활상에 대한 대체적인 탐색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다 심도 깊은 역동 및 심리적 작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기러기 어머니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거주 기간과 상태, 자녀유학에 대한 생각, 남편과의 연락, 현지에서의 대인관계, 여가활동과 적응수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에 유학하는 유학생 어머니 총 6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하는 기러기 어머니를 모집하기 위해 현지 종교단체나 유학생이 다니는 사설학원, 한인학교, 어머니를 위한 영어학원 등에서 연구대상들과 직접 만남을 가졌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뉴질랜드 조기유학생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뉴질랜드가 현재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라는 점, 비교적 범죄가 적으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에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유학지로 선택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유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은, 비단 상류계층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중류 계층 자녀들이 조기유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의 조기유학생들의 생활 실태 및 적

응 만족도 등은, 현대 한국사회의 조기유학의 대중화로 인한 기러기 가족 발생과 맞물려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본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인구학적 변인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 질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유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질문지

<표 1> 인구학적 특성

변 인	하위범주	n(%)
연 령	만30세-만40세 미만	14(21.21)
	만40세-만50세 미만	50(75.75)
	만50세 이상	2(3.03)
학 령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25.76)
	2년제 대학 졸업	4(6.06)
	4년제 대학 졸업이상	40(60.61)
	대학원	5(7.58)
어머니 직 업 (한국)	전문직	3(5.26)
	사무직	4(7.02)
	자영업	2(3.51)
	초중고 교사	4(7.02)
	주부	44(7.19)
어머니 직 업 (현재)	전문직	1(1.92)
	사무직	1(1.92)
	자영업	3(5.77)
	초중고 교사	1(1.92)
	단순노무직	3(5.77)
	주부	43(82.69)
아버지 직업	전문직	18(31.03)
	사무직	20(34.48)
	자영업	15(25.86)
	초중고 교사	2(3.45)
	기타	3(5.17)
종교	기독교	26(39.39)
	불교	11(16.67)
	천주교	14(21.21)
	무교	15(2.73)
가정의 월수입	200만원 미만	0(0.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18.75)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2(34.38)
	5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20(31.25)
	800만원 이상	10(15.63)

를 구성하였다. 인터뷰 내용과 선행연구, 그리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는 아동 가족 관련학과 교수 1인과 아동 가족관련 학과 박사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문한 내용은 기러기 어머니의 거주기간과 상태(거주한 기간, 자녀가 유학 온 학년, 자녀의 유학기간, 함께 유학하고 있는 자녀의 수), 자녀 유학에 대한 생각(자녀의 유학 계획, 자녀가 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자녀유학에 대한 본인의 지금 생각, 유학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뉴질랜드 학교의 좋은 점에 대한 생각, 뉴질랜드 학교의 나쁜 점에 대한 생각), 한국 남편과의 연락(한국에 계신 남편과의 연락 빈도, 남편과 주로 연락하는 통신수단), 현지에서의 대인관계(가까이 지내는 한국 친구 수, 한국 친구를 만나는 횟수, 한국 친구들과 함께 얘기할 때 대화의 주제, 가까이 지내는 외국 친구 수, 외국 친구를 만나는 횟수, 외국 친구들과 함께 얘기할 때 대화의 주제, 외국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초대받아 간 경험, 외국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나 외국 친구를 초대한 경험, 외국 친구 교제의 어려움 정도, 친구들과 주로 연락하는 통신수단), 여가활동과 현지 적응(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현재 어머니가 생각하는 영어의 유창도, 일상생활 속에서 뉴질랜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 현지 적응 정도, 현지 생활만족도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질문형태는 선다형 방식의 질문지로 구성되었으며, 선다형 질문으로 얻기 어려운 질문들(뉴질랜드 학교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외국친구와의 주된 어려움,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자유 응답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대상으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의 어머니도 다수 참여하였다. 그런 경우 어머니가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 왼쪽에 어머니가 떠올린 자녀의 이름을 적고 그 자녀를 염두에 두고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분포를 알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생활실태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 응답식 질문 문항은 내용 분석하였고, 선다형질문지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중복 응답 질문에 대해서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에서의 주거상태, 자녀유학에 대한 생각, 한국 남편과의 연락, 현지에서의 대인관계, 그리고 여가생활과 현지 적응 등 총 5가지 영역에서 25문항을 질문하여 응답을 구하고 분석하였다.

1. 현지에서의 주거 상태

뉴질랜드 기러기 어머니의 거주 기간은 1년-2년인 경우가 3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년-3년인 경우가 30.77%로 많아서 대부분 1년-3년 정도 거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유학 온 학년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43.08%로 가장 많고, 중학교 때 27.69%,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16.92% 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자녀의 유학기간은 2년-4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1.81%로 가장 많았고, 1년-2년 미만인 경우도

32.73%로 많아 자녀의 유학기간은 거의 1-4년 정도에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와 함께 유학하고 있는 자녀의 수는 2명인 경우가 57.58%로 가장 많았고 1명이 24.24%, 3명인 경우가 13.64%이었으며 4명인 경우도 4.55%이었다.

2. 자녀 유학에 대한 생각

기러기 어머니들은 동거하는 자녀가 얼마나 더 유학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5.94%가 자녀가 원하는 만큼이라고 응답하였고 중학교까지 또는 대학교까지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17.19%, 고등학교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15.83%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마다 각기 다른 유학의 시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가 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47.06%가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3.53%의 어머니가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17.65%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학벌이라고 응답하였다. 자녀 유학에 대한 현재의 생각을 질문한 결과 56.92%가 잘한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27.69%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80% 이상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유학시키게 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고 있었다. 자녀를 유학시키기에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인지를 질문한 결과 56.06%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응답하였고, 21.21%가 중학교 때, 그리고 19.70%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고 응답하였다. 이로부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유학의 적절한 시기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뉴질랜드 학교의 좋은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 같다(19.85%)를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이, 자유롭게 자율적이다(16.79%)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수준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다(16.79%)였다. 그 밖에도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12.21%), 학생 수가 적고,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키워준다(10.69%), 발표와 대화중심의 수업방식이 좋다(9.16%)도 많은 어머니들이 뉴질랜드 학교의 좋은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뉴질랜드 학교의 나

〈표 2〉 거주기간과 거주 상태

변 인	범 주	빈 도
거주한 기간	1년 미만	1(2.56)
	1년 이상-2년 미만	22(33.85)
	2년 이상-3년 미만	20(30.77)
	3년 이상-4년 미만	6(9.23)
	4년 이상	2(3.08)
자녀가 유학 온 학년	유치원	3(4.62)
	초등학교 저학년	11(16.92)
	초등학교 고학년	28(43.08)
	중학교 때	18(27.69)
	고등학교 때	5(7.69)
자녀의 유학기간	1년 미만	12(21.82)
	1년-2년 미만	18(32.73)
	2년-4년 미만	23(41.81)
	4년 이상	2(3.64)
함께 유학 하고 있는 자녀의 수	1명	16(24.24)
	2명	38(57.58)
	3명	9(13.64)
	4명이상	3(4.55)

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3.61%가 자녀가 깊은 친구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현지 학생들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편견

(21.31%)을 들었으며, 유학생(18.85%)이나 부모(23.30%)에 대한 학교의 배려 부족이나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10.66%)도 느끼는 어머니도 소수 있었다.

〈표 3〉 자녀유학에 대한 생각

변 인	범 주	빈 도
앞으로의 자녀 유학 계획	초등학교	7(10.94)
	중학교	11(17.19)
	고등학교	10(15.63)
	대학교	11(17.19)
	대학원 이상	2(3.13)
	자녀가 원하는대로	23(35.94)
자녀가 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24(47.06)
	자립심과 책임감	4(7.84)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자질	12(23.53)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학벌	9(17.65)
	선진문화의 습득	2(3.92)
기타	0(0.00)	
자녀 유학에 대한 본인의 지금 생각	유학 시키길 매우 잘했다	18(27.69)
	잘한 것 같다	37(56.92)
	그저 그렇다	8(12.31)
	조금 후회한다	2(3.08)
	매우 후회한다	0(0.00)
자녀 유학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초등학교 저학년	13(19.70)
	초등학교 고학년	37(56.06)
	중학교	14(21.21)
	고등학교	2(0.03)
	대학입학시기	0(0.00)
대학졸업 후	0(0.00)	
뉴질랜드 학교의 좋은 점에 대한 생각 (자유중복응답)	폭력이 없다	3(2.29)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	16(12.21)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 같다	26(19.85)
	발표와 대화중심의 수업방식이 좋다	12(9.16)
	학생수가 적고,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키워준다	14(10.69)
	자유롭고 자율적이다	22(16.79)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수준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22(16.79)
	치맛바람이 없다	7(5.34)
	교사가 친절하고 개방적이다	9(6.87)
뉴질랜드 학교의 나쁜 점에 대한 생각 (자유중복응답)	자녀가 깊은 친구관계를 맺기 어렵다	41(33.61)
	너무 자유로워서 불편한 점이 있다	3(2.46)
	유학생 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15(12.30)
	유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23(18.85)
	문란함, 무질서, 나쁜 아이들이 많고, 나쁜 길로 빠지기 쉽다	1(0.82)
	배우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3(10.66)
현지 학생들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편견이 있다	26(21.31)	

3. 한국 남편과의 연락

한국 남편과의 연락 빈도는 51.79%가 매일 연락을 하고 28.57%가 일주일에 3-4번 연락을 하며, 10.71%가 일주일에 1-2번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90% 이상이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한국에 있는 남편과 연락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된 연락수단은 전화(87.76%)로 나타났다. 즉,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많은 기러기 어머니들은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한국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생활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4> 한국 남편과의 연락

변 인	범 주	빈 도
연락 빈도	매일연락	29(51.79)
	일주일에 3-4번	16(28.57)
	일주일에 1-2번	6(10.71)
	한달에 1-2번	3(5.36)
	거의 연락 안한다	2(3.57)
연락수단	전화	43(87.76)
	문자메시지	0(0.00)
	e-mail	2(4.08)
	인터넷 채팅	2(4.08)
	기타	2(4.08)

4. 현지에서의 대인관계

어머니들의 현지에서의 대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서 가까이 지내는 한국 사람과 외국사람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들이 뉴질랜드 현지에서 가까이 지내는 한국 사람의 수는 대부분 3-5명(44.62%)이거나 1-2명(41.54%)이었다. 그 들을 만나는 횟수는 41.26%가 자주 만난다고 응답하였고, 34.92%가 일주일에 1-2번 만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일만나는 경우도 15.87%에 속하였다. 가까이 지내는 한국 사람들과 나누는 주된 대화 주제는 62.75%가 자녀의 학업 및 진로문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신변잡담이 19.61로 높았다. 그러나 그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큰 분포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까이 지내는 외국 친구 수는 56.92%가 한명도 없다고 응답하였고, 36.92%가 1-2명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을 만나는 횟수는 58.93%가 따로 안 만난다고 응답하였고 30.36%가 일주일에 한두번이라

<표 5> 현지에서의 대인관계

변 인	범 주	빈 도
가까이 지내는 한국 사람 (친구) 수	한 명도 없다	1(1.54)
	1-2명	27(41.54)
	3-5명	29(44.62)
	6-9명	5(7.69)
	10명 이상	3(4.62)
가까이 지내는 한국 사람 (친구)을 만나는 횟수	매일 만난다	10(15.87)
	자주 만난다	26(41.26)
	일주일에 1-2번 만난다	22(34.92)
	안 만난다	5(7.94)
가까이 지내는 한국 사람(친구)과 함께 얘기할 때 대화 주제	신변 잡담	10(19.61)
	한국 이야기	1(1.96)
	자녀의 학업 및 진로문제	32(62.75)
	종교와 관련된	1(1.96)
	뉴질랜드 이야기	3(5.88)
	TV, 영화, 연예인	0(0.00)
	취미, 관심거리	3(5.88)
	집안 이야기	1(1.96)
가까이 지내는 외국 친구 수	한 명도 없다	37(56.92)
	1-2명	24(36.92)
	3-5명	3(4.62)
	6-9명	1(1.54)
	10명 이상	0(0.00)
외국 친구를 만나는 횟수	매일 만난다	0(0.00)
	자주 만난다	6(10.71)
	일주일에 1-2번 만난다	17(30.36)
	따로 안 만난다	33(58.93)
외국 친구들과 함께 얘기할 때 대화 주제	신변 잡담	14(37.84)
	한국 이야기	0(0.00)
	자녀의 학업 및 진로문제	4(10.81)
	종교와 관련된	0(0.00)
	뉴질랜드 이야기	9(24.32)
	TV, 영화, 연예인	0(0.00)
	취미, 관심거리	6(16.22)
	집안 이야기	4(10.81)
외국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초대받아 간 경험	없다	31(46.97)
	가끔 있다	33(50.00)
	자주 있다	2(3.08)
외국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나 외국 친구를 초대한 경험	없다	49(75.38)
	가끔 있다	13(20.00)
	자주 있다	3(4.62)
외국 친구 교제의 어려움정도	어려움이 많다	49(75.38)
	어려움이 약간 있다	13(20.00)
	어려움이 별로 없다	2(3.08)
	어려움이 전혀 없다	1(1.54)

〈표 5〉 계속

변인	범주	빈도
외국 친구와 교제의 주된 어려움	언어의 문제	39(62.90)
	사고방식의 차이	1(1.61)
	나의 성격 때문에	2(3.32)
	공통의 화제가 없어서	4(6.45)
	언어장애와, 사고방식의 차이	4(6.45)
	언어장애, 사고방식의 차이, 나의 성격	9(14.52)
	언어장애, 사고방식의 차이, 나의 성격, 공통의 화제가 없어서	3(4.84)
	외국 친구 교제에 관심이 없다	0(0.00)
친구들과 주로 연락하는 통신수단	전화	51(83.61)
	문자메시지	1(1.64)
	e-mail	9(14.75)
	인터넷 채팅	0(0.00)
	기타	0(0.00)

고 응답하였다. 그들과의 대화주제는 주로 37.84%가 신변잡담(37.84%)이거나 뉴질랜드 이야기(24.32%), 그리고 취미와 관심거리(16.22%)이었다. 외국친구 집에 놀러 간 경험이나 초대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0%가 가끔 있다고 답한 반면 46.97%는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외국 친구가 집에 놀러오거나 그들을 초대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75.38%가 없다고 답하였고 20%가 가끔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 친구 교제의 어려움 정도는 어머니들의 대부분이 어려움이 많다(75.38%)라고 응답하였고 약간 있다고 한 어머니도 20.00%로 나타났다. 외국 친구를 사귀는데 주된 어려움에 대해 62.90%가 언어라고 답하였고, 언어와 사고방식, 자신의 성격이라는 중복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가진다고 응답한 사람이 14.52%이었다. 현지 친구들과 주로 사용하는 통신 수단은 전화가 83.61%로 제일 높았고 14.75%가 이메일이었다.

5. 여가활동 및 현지 적응

어머니들은 여가활동으로 주로 영어공부(22.91%)나 TV, 비디오보기(20.67%), 운동(12.85%), 독서 및 글쓰기(8.94%),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작업(8.94%)등을 하고 있었다. 현지 생활에서 어머니의 영어 유창도는 59.38%가 조금 가능하다고 하였고, 23.44%는 의사소

〈표 6〉 여가활동 및 현지 적응

변인	범주	빈도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자유 중복응답)	독서 및 글쓰기	16(8.94)
	운동	23(12.85)
	취미생활	7(3.91)
	종교활동	12(6.70)
	봉사활동	2(1.12)
	영어공부	41(22.91)
	TV, 비디오 등 보기	37(20.67)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한 작업	16(8.94)
	관심있는 것 배움	3(1.68)
	음악감상, 노래부르기	3(1.68)
현재 어머니가 생각하는 영어의 유창도	소핑	10(5.59)
	휴식	6(3.35)
	영화 및 콘서트 관람	3(1.68)
	스포츠 관람	0(0.00)
일상생활 속에서 뉴질랜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	의사소통이 거의 힘들다	15(23.44)
	조금 가능	38(59.38)
	보통이다	9(14.06)
	하고싶은 말은 거의 한다	2(3.13)
	유창하다	0(0.00)
현지 적응 정도	서적	0(0.00)
	TV	31(52.54)
	인터넷	4(6.78)
	각종 문화행사	5(8.47)
	뉴질랜드 신문	6(10.17)
현지 생활만족도	한국 신문	12(20.34)
	이용안함	1(1.69)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고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4(6.25)
	조금 이해하는 것 같고, 다소의 어려움을 느낀다	20(31.25)
현지 생활만족도	어려움 없이 적응하여 사는 편이다	28(43.75)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한다	12(18.7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00)
	만족하지 않는다	6(9.09)
	그저 그렇다	28(42.42)
현지 생활만족도	만족한다	31(46.97)
	매우 만족한다	1(1.52)

통이 거의 힘들다고 하였으며, 14.0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3.13%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한다고 표현하였고, 유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뉴질랜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52.54%가 TV였고, 20.34%가

한국 신문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뉴질랜드 신문을 이용하는 사람은 10.1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지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43.75%가 어려움 없이 적응하여 사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31.25%가 다소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도 18.75%에 속하였다. 즉 대략 40%미만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은 적응에 많거나 적은 어려움을 느끼고 나머지 60%이상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은 현지에 잘 적응하여 산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97%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도 42.42%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은 전체의 9.09%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생활에 만족하며 산다고 추측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족 구조의 변화는 어찌 보면 적응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학술 보고나 매스컴 등을 통해 기러기 가족의 폐해와 역기능적 측면이 많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기러기 가족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발생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가족 이데올로기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이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러기 가족은 더 이상 일부의 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현대의 한국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구조로서 살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기러기 가족 내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러기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 보았다. 이는 기러기 어머니의 기능 및 특징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질랜드 기러기 어머니의 거주 기간과 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거주 기간은 대체로 1년-3년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유학을 온 것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와 중학생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유학기간은 대부분 1-4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함께 유학하고 있는 자녀의 수는 1명-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조기 유학생은 소수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현지에서 청소년기가 시작되거나,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제 2의 성장급등기로서 정서적으로 예민하며, 신체적 성장 및 생리적 성숙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엄마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현지의 유학생들이 비교적 안정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너무 이른 시기에 시작된 조기 유학으로 인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갈등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송인호(2001)에 의하면, 유학의 연령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유학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로 선택해야 하며, 대체로 고졸 이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즉 너무 어린 나이에 해외 유학을 할 경우, 언어와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부모나 친구들과의 유대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러기 가족의 경우를 보면, 부모는 철저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불편을 무릅쓰고 자녀를 위한 장기 분거 형태라는 생활을 선택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에 해외에 유학을 보내게 됨으로써 자녀들은 서양식 사고체계를 학습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부모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큰 시기이며(이지향, 2004 : 267-273), 현지의 유학생과 어머니 사이에서도 역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장기 분거 형태를 감수한 한국형 어머니와 서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자녀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기 부모-자녀 사이의 갈등과 그 양상도 다를 것이며, 정도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조차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모 자녀간의 유대감이 약화되는 일

이 벌어질 수도 있다. 즉 조기 유학의 연령은 학습을 위한 최적의 시기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가족생활주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녀의 뉴질랜드 유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앞으로의 자녀 유학 기한은 자녀가 원하는 만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응답은 초·중·고·대학교 모두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유학 양상은 대체로 입시에 실패한 자녀들의 대학교 진학, 혹은 이와 반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마치고 해외에서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으므로(김홍주, 2001) 유학 연령대가 특정 시기에 편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기 유학 시기가 전 연령대에 분포된다는 것은 지금의 유학 양상은 과거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녀가 유학을 통해 얻기를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얻고,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자질을 키는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자녀 유학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적의 유학 시기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끝으로 현재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뉴질랜드 학교의 장단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장점으로는 학교 폭력이나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학습 외적 특성보다는, 학업 분위기와 교과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점으로는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우려나 유학생에 대한 배려의 부족 등을 응답한 경우가 많음으로써 인간관계 측면에 있어서 부적절함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단점으로 지적된 내용 중에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이 10%를 넘어서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급격히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느끼는 실망감, 학업 이외의 부분, 즉 자녀의 인성이나 대인관계 면에서는 그다지 배우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실망감 등 다양한 요인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 어머니들이 뉴질랜드의 학교 측에 느끼는 불만은 정확히 무엇에 기인하는지, 학교 측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하

게 탐색하기를 제언하는 바이며, 이를 통하여 유학생과 유학생 부모에 대한 배려 부족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보아 자녀의 학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부모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원하는 만큼 유학을 시킬 수 있다는 응답과 유학의 목적이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부모는 자신들 세대와는 달리, 자녀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들이 한국에 있는 남편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기러기 어머니의 90% 이상이 적게는 주 1회, 많게는 매일 한국에 있는 남편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며, 주된 연락수단은 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러기 부부 간에는 연락을 자주 취하는데 비해서, 연락 수단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전화의 경우, 이메일이나 채팅 등의 방법에 비해서 요금도 비싼 편이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제한되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심도 깊은 이야기로 가족 간의 유대를 나눌 수 있는 여유는 없으며, 그저 짧막한 시간 동안 피상적인 대화만 나눌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가족 간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능할 것이라 여겨지지만,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락을 취한다면, 연락을 취함에 있어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가, 더욱 심도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단,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연락 빈도 및 수단을 통하여 부부관계의 질에 관해 추론하였을 뿐, 실제적인 만족도를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는 데, 후속연구를 통해 기러기 부모 각자가 느끼는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기러기 부모의 생활 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현지에서의 대인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우선 현지의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가까이 지내는 한국 사람의 수는 대부분 1명에서 5명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게는 주 1회, 많게는

매일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소재는 주로 자녀의 학업 및 진로문제나 신변잡담이 가장 많았다. 한편 외국친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까이 지내는 외국인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그 수가 약 1, 2명이며,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끔 만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화 시의 주제는 뉴질랜드에 관한 화제나 취미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외국인 친구와 서로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 또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언어에 기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끝으로 친구들과의 연락을 취하는 매체는 전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보아, 기러기 어머니들은 현지에서 소수의 한국인 친구와 자녀에 대한 대화를 주로 나누고 있으며,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에도 언어 구사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원활하고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기러기 어머니들은 기러기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기러기 아버지들은 가족과의 별거로 인한 외로움을 친구와 친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달래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양희 외 1인, 2004). 반면 기러기 어머니들은 친구나 지인이 적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위안을 위한 대화를 주고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외로움 해결을 물론이고, 현지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라도 언어로 인한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어려움 등을 탐색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자녀와의 관계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못지않게 기러기 어머니들의 현지 적응을 예측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기러기 가족 구성원 각자가 느끼는 관계 및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해본다.

다섯째, 현지에서 어머니들의 여가활동과 현지 적응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여가활동으로 주로 영어공부와 TV 혹은 비디오 보기 등을 행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많은 기러기 어머니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질랜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는 TV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즉, 언어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에도 주로 혼자서 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언어 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지 생활에 대해 특별히 불만스럽다는 응답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자녀들이 현지 학업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힘들게 내린 결정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인 또한 작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지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하여 계속 탐색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관련 요인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러기 가족을 현대 사회에 나타난 대안가족의 한 형태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이제는 기러기 가족에 대한 사회적이며 정책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대안 가족 형태인 기러기 가족의 기능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기러기 가족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대략적인 통계치는 약 2만 가족 이상일 것(조애저, 2005)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정확한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들이 생활상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모색되기 힘들다. 앞서서도 밝힌 바 있듯이 기러기 가족은 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조기 유학을 위한 이민자 수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류층만이 아닌 중류층 자녀들까지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나타난 연구나 매스컴의 보고에 따

르면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조명 받고 있다. 기러기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시사점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기러기 가족이라는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자녀의 조기 유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이들 자녀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갖춘 인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등 이들만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러기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중 한 가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부부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신광식, 2001)이라는 보고를 고려할 때, 이들의 문제점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비판하는 것 보다 이들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재 기러기 가족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며, 주로 가족이나 친척, 종교 단체나 한인들 간의 친목 단체 등 개인적 지원체계가 이용되고(엄명용, 2002) 있다. 이는 아직도 기러기 가족이 각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녀의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의 발생이 한국의 사회적, 교육적 모순과 관련 깊은 만큼, 이들의 언어, 현지에서의 대인관계, 그리고 한국에 남은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을 예방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러기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더불어 기러기 가족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 분거 형태를 취하는 가족의 친밀감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프로그램, 낯선 환경에서 가족원들의 효율적인 적

응을 도울 수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 및 지원인력이 마련될 때 이들을 위한 공적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양희, 장온정(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김홍주(2001). 조기유학(교육이민)의 실태와 바람직한 대처 시각. 서울교육, 163, 12-16.
- 송인호(2001). 조기유학 바람, 그 문제점과 처방. 서울교육, 163, 22-26.
- 신광식(2001). 기러기 아빠를 아십니까: 열악한 교육 환경 속 질식하는 아이들 아내 딸려 해외 유학 보내고...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로. 뉴스메이커, 10(42), 32-34.
- 양정호(2003). 조기유학, 실태 및 해결책은? 새교육, 590, 72-75.
- 엄명용(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 문제: 기러기 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25-43.
- 이미나(2001). 우리 교육 현실에서 본 조기유학의 의미. 서울교육, 163, 17-21.
- 이지향(2004). 부모-자녀 관계의 이해. 조선휘, 김혜진, 이영나, 이지향, 조유진, 허미선, 인간관계의 이해. 서울: 교문사.
- 조애저(2005).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103, 24-46.
- 최문영(2001). 외국에서 본 우리 교육의 강점. 서울교육, 163, 27-31.
- 최양숙(2005). 비동거 가족경험 - '기러기 아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5년 6월 30일 접수, 2005년 9월 27일 채택)